

# RISE 통한 염소 전용 의약품 확충 국산화

전북대, 초광역 동물용의약품 혁신 허브 구축 나서  
AI 기반 개발·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본격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초광역 동물용의약품 혁신 허브 구축에 나섰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염소 전용 의약품 확충 및 국산화: AI 기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및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소·돼지에 편중돼 있던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염소로 확대, 국내 시육 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염소 산업에 특화된 전용 국산 의약품을 확보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농장 현장에서 수집되는 생체·환경 데이터를 분석, 질병 발생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고, 맞춤형 처방·관리를 지원

하는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수의과대학 박철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의과대학 김희관 교수, 자연과학대학 흥승표 교수가 핵심 연구를 이끈다.

여기에는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 연구원, (주)우진비엔지, (재)동물용의약품상용화기술연구조합 등 외부 연구기관이 참여해 염소 전용 의약품 개발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AI 분석 결과를 염소 전용 의약품 처방과 연계해 '맞춤형 질병 관리 체계'를 구현, 실제 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반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광역 혁신 허브 구축에 나선 것. '초광역 동물용의약품 혁신 허브 구축: 신약·자기백신 평가 기이드라인 및 규제 개혁 선도 모델'을 통해 신약·자기백신에 대한 국제 수준의 과학적 평가 기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구·평가·실증·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수의과대학 김원일 교수 가 책임을 맡아 진행하며, (재)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재)포항테크노파크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포스텍,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 등이 참여한다.

이정환 지역혁신센터장은 "동물용의약품 관련 지산학연 네트워킹 활용 능력과 자료 분석 역량을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용의약품 생산밸리 구축 및 의약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사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빛나는 순간' ...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

전북미래학교 교직원 등 800여명 참여... 교육활동 실천 사례 공유

전북미래학교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전북미래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교육유원청 담당장 학사, 일반학교 및 공립유치원 회장 교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미래학교는 2023년 16개의 준비 학교로 시작해 올해 146개교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날 보고회를 통해 성과 분석 연구와 학교들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결과가 발표·전시됐다.

학교교육활동 우수사례로는 △부안 동초(김다혜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야기 △전주우전중(염지은 교사) '배움으로 성장하고 관계로 회복하는 학교 이야기' △전북대사범 부설고(안현주 교사) '배움으로 세상을 품다. 함께하는 전북미래학교' 등

이 소개됐다.

이야기마당에서는 송원초 강방용 교감이 좌장을 맡아 △전주성현유치원(유나리 교사) △전주교대전주부설초(이경화 교사) △전주초등학교(허정수 교사) △전주만성중(김지연 교사) △회현중(경윤운 교사) △백산고(진경아 교사)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최진석 교사)에서 각각의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또, 지난 1년간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 열정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사와 교육공동체의 이야기들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시됐다. /장은성 기자

## 정책·비전 중심 '전북형 교육' 모델 알린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23일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등 통해 실천 교육정책 제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북교육 혁신을 향한 '정책·비전' 중심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총장의 비전으로 △AI시대, 아이(AI)가 미래다 △학력을 넘어 실력을 기르자 △선발에서 발달로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지역이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지역을 기운다 △나 홀로에서 함께로 △带头人이 아닌 배려로 등의 핵심 의제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상임대표 이남호)' 출범식이 그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포럼은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단순한 정책 연구를 넘어 전북 교육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제1차 정책간



담회를 통해 전북교육 위기 진단과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 출범 이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분야별 정책 시리즈 발표 등 준비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포럼을 통해 징집된 각계의 제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24일 열릴 출판기념회에서 교육 철학과 정책 비전이 담긴 중장기 미래교육 로드맵과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학생에게는 배움의 기쁨과 성장의 자신감을, 교사에게는 존중받는 전문성과 자금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설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은 학령인구 감소·학력 격차·미래 역량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전문성과 철학, 준비된 비전과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교육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전 전북교육은 보여주기식 '꾼'이 아닌 '일꾼'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는 남원 출생으로 전주 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첨조경제 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 "지금 교육의 시대정신은 '생존'"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교육감 재도전 선언

기초학력 완전책임제·진학진로교육원 신설 등 제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전주교대 교수)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된 이날 선언문에서 천 소장은 "저는 평생을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교사를 길러내는 교수로 살아온 현장 교육전문가"라며 "3년 전 200여 시민단체와 12만 도민이 참여한 전북민주 진보교육감단일후보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민주진보전북교육감 후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재도전하겠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진학진로교육원 신설, 부패와 비리 엄단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천호성 소장은 이 자리에서 지

금 교육의 시대정신으로 '생존'을 언급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살아남는 개인의 생존,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지역의 생존', 기후환경의 위기로부터 살아남는 전지구적 생존'으로 '생존'의 삼위일체가 교육정책의 철학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기초학력 완전책임제를 통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초학력의 보장은 공교육의 가장 큰 책무이며,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과 연계해 기초학력 정답 교원을 양성,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에 기반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학진로교육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수능 중심 진학지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 전형 등으로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진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꿈을 키우고 그에 맞는 실력을 기르는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에 전북교육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청렴과 공정은 기본이라며, 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천 소장은 "15년간 현장교사로서의 경험과, 20년간 수업을 연구하고 교육정책을 고민한 교수, 500여회 학교를 다니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 보고 듣고 나눈 경륜이 융합된 '현장 교육전문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3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힘 풀리며 축적한 소중한 경험과 경륜이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올 한해 아이돌봄 성과 돌아보다

전북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놀이활동 전문가 특강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중심 돌봄 방법'을 소개했다. 참석한 돌보미들은 아동 발달에 적합한 놀이 기법을 직접 배우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가졌다.

김병수 전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성과보고회가 전북 아이돌봄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2026학년도 유학생 입시 정보 박람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0일 선교관 진리홀에서 '2026학년도 유학생 입시 정보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비전한국어센터 어학연수생 중 2026학년도 3월 학기 본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과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선택을 돋기 위해 기획됐다.

박람회에는 비전한국어센터 3~5급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 173명이 참여했다. 이에 건축과를 포함한 17개 학과가 부스를 설치해 교육과정, 실습 환경, 취업 전망 등 전공별 안내를 진행했다. 유학생들은 각 학과 진학과 직접 상담하며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류원 이효숙 원장은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심해' 내달 28일까지 개최

미술교육과 장지성 교수



바탕으로 임명 절차 단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새롭게 선출될 총장이 대학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성 교수는 "선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순위 후보자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 '탐구의 결실 나눔' ... 학생수학동아리학술제

내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서... 1년간 활동 내용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학생수학동아리학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 관람객은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과학교육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